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on Scores for the Maternal Behavior Q-set in Korea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구미향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이양희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Lecturer : Mee Hyang Koo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 : Yanghee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riterion scores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Maternal Behavior Q-set. The Maternal Behavior Q-set was developed as a means of describing maternal behavior at home. This Q-set consists of 90 items which are sorted to reflect the degree of similarity with mother's observed behavior. A mother's sensitive score is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description of her behavior with the criterion scores of Maternal sensitivity. The criterion scores of Maternal sensitivity were developed by 10 judges who are cognizant in attachment theory and maternal behavior in natural contexts. The correlation among each of the 10 judge's maternal sensitivity scores was greater than .72. The maternal sensitivity criterion scores developed for Korean mothers correlated highly with the criterion scores for North American mothers. And the interobservers' correlation of the sensitivity scores ranged between .47~.93. According to the items in the Maternal Behavior Q-set judged to be most like and most unlike the prototypically sensitive mothers, "When baby is distressed, mother is able to quickly and accurately identify the source" proved to be the most sensitive maternal behavior item. "Mother seldom speaks to the baby directly" was the least sensitive maternal behavior item.

I. 서론

가정은 인간발달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서 개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토대이자 정서적 지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부적응적 발달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가정환경에서 특히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초기 상호작용경험과 애착관계는 영유아기 이후의 발달과정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애착은 유전적으로 계획된 행동구조로서, 특정대상에게 접근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행동 또는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행동이다 (Bowlby, 1958, 1969).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관계는 상호작용경험의 누적된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에 안정 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기의 인지(Cassidy, 1986; Sroufe & Waters, 1977), 정서(Kobak & Sceery, 1988; Sroufe, 1984), 사회성(Lutkenhaus, Grossmann, & Grossmann, 1985; Main & Weston, 1981)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초기 어머니와 영아가 형성한 애착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이 이후 성인기의 애착유형 및 성격특성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Bretherton, 1992; Kobak & Sceery, 1988; Schneider, 1991)은 영유아기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정적 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성행동특성으로 영아가 보내는 신호나 영아의 현재 상태와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영아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모성행동들이 포함된다 (Egland & Farber, 1984; Isabella & Belsky, 1991). 이와같은 모성행동특성들 중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모성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모성행동(Q-set)이 개발되었다(Pederson, Moran, Stiko, Campbell, Ghesquire, & Acton, 1990).

우리나라에서도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환경과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특히 영유아의 초기 양육환경과 애착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애착 및 후속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연적인 상황에서 모자관계의 특성을 관찰하여 모성 양육행동의 명확한 개념정립 및 이에 상응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관찰상황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과 모성행동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모성행동의 민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모성 행동의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국에서 고안된 모성 행동(Q-set)을 국내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여 국내 준거점수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성행동(Q-set)에 의해 분류된 모성행동 민감성의 국내준거점수는 어떠한가?
2. 국내준거점수에 나타난 모성행동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모성행동

어머니는 일차적 양육자로서 영아가 출생한 후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모성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성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내재적 행동 및 특성을 의미한다. 모성행동에 대한 과거의 연구경향은 어머니가 영아와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일방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였으나 근래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안미경, 1996; Martin, 1981). 따라서 모성행동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경향은 어머니와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모성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모성행동은 주로 자녀의 양육행동으로 대표되는

데, Belsky(1984)는 양육행동 결정의 과정 모델을 제시하면서 부모와 아동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세 차원이 양육행동에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양육행동은 부모의 발달사, 성격특성, 결혼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및 직업상의 경험 등과 같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과거 부모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일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박응임, 1995; Luther, Burack, Cicchetti, & Weisz, 1997). 이와같이 과거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에 기초해서 사회적 물리적 세계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발달하며 이후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내적표상은 애착의 질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균형된 표상을 갖는 어머니의 아동은 안정적으로 애착되는 반면 비개입적이거나 왜곡된 표상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은 불안정한 애착을 맺는다(박숙경, 1995).

영아가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인식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어머니의 능력 또한 모성행동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영아가 불편해하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것을 어머니가 빨리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줄 때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Glodsmitth & Alansky, 1987). 민감한 모성행동을 통해 어머니는 영아의 애착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감의 근원이 되는 반면 둔감한 모성행동은 아동의 욕구를 거부하거나 과잉보호하며 애착과 탐색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Bowlby, 1988; Hock & Schirtzinger, 1992). 영아의 행동적 단서에 민감하고 영아의 현재 상태와 활동을 존중하는 어머니의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반면, 영아의 신호에 둔감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어머니의 영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결과(Blehar, Lieberman & Ainsworth,

1977)는 모성행동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애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다.

모성행동에서 어머니의 민감성과 더불어 영아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고 정서적인 접촉을 갖는 것 또한 안정적인 모자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은 애착의 안정성(Izard, Haynes, & Baak, 1991)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주장 및 정서조절능력과도 관련된다(Denham, Renwick, & Holt, 1991). 제안이나 설명과 같은 설득적인 언어책략을 사용하는 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성행동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 되며(Dekovic & Janssens, 1992) 부모로서의 역할에 효능감(self-efficacy)을 갖는 어머니일수록 영아와 온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eti & Gelfand, 1991).

2. 모성행동의 측정

지금까지 모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실험실의 인위적이고 구조화된 상황이나 질문지법을 통한 면담에 의존해 왔다. 특히 Bowlby의 동물행동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달한 애착이론은 Aisworth에 의해 고안된 '낯선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에 의해 영아가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착관계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애용되었다(나유미, 1997; 최해훈, 1997; Ai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Lamb, 1987). 그러나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는 상호적인 감정과 행위의 지속적이고 일반화된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험실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보이는 영아의 행동이 일반적인 모자관계의 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조화된 상황에서 평가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신뢰롭다고 할 수 없다(이영, 1992; 신숙재, 1997).

애착연구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Waters와 Deane(1985)은 Bowlby와 Ainsworth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자연스러운 가정상황에서 영유아가 애착대상 인물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나타내는 행동들을 평가하는 Q-sort

방법을 고안하였다. Q-sort 방법은 관찰대상의 성격과 특성 및 태도 등을 관찰하기에 용이하고 각 항목에 대한 피험자의 점수를 하나의 변인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상의 잇점이 있다(김은아, 1996;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최근 Pederson 등(1990)은 어머니의 모성행동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Waters와 Deane에 의해 개발된 애착행동 Q-set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모성행동 Q-set을 개발하였다. 모성행동 Q-set은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된 모성행동을 설명하는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항목에는 어머니의 반응을 요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를 인지하여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기술되어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정서표현, 영아에 대한 주의, 영아와의 상호작용방식과 의사소통기술 등에 따라 관찰자는 모성행동의 민감성을 1점에서 9점까지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모성 민감성 준거점수는 열명의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가정되는 모성행동을 염두에 두고 90 문항을 1점에서 9점까지 각 10문항씩 9 묶음으로 분류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된다. 또한 모성행동 민감성 점수는 전문가들이 산출한 준거점수와 관찰된 모성행동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분석된다. Pederson 등(1990)은 애착행동 Q-set과 모성행동 Q-set을 사용하여 12개월 된 영아 40쌍을 대상으로 영아의 애착과 모성 민감성간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 애착의 안정성과 모성 민감성간의 강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Pederson, Moran, Sitko, Campbell, Ghesquire, & Acton, 1990). 이러한 결과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모성행동과 영아의 상호작용적 행동특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성행동 Q-set과 애착행동 Q-set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후의 연구결과(Pederson & Moran, 1985)와도 일치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점수를 개발하기 위

해 영아의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내 유아교육과와 아동학과 교수,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 등 열 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두 명의 관찰자간 신뢰도 산출을 위해 평균 12개월된 영아와 그 어머니 30쌍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대상의 특성은 중류층 비취업모와 정상분만영아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Pederson 등(1990)이 개발한 모성행동 Q-set (Maternal Behavior Q-set)이다. 이 도구는 애착 안정성과 관련하여 12개월 영아에 대한 모성 행동을 기술하는 문항이 담긴 9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모성행동 Q-set은 자연적인 관찰상황에서 모성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였던 Ainsworth 등의 초기연구(1971, 1974)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150문항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나 모성 민감성의 지표로 간주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에 의해 전형적으로 민감한 모성행동으로 여겨지는 90개의 항목이 최종적으로 선별되었다. 따라서 각 문항에는 아동양육방식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영아의 행동에 대한 주의 및 상호작용방식, 그리고 의사소통기술 등을 포함하여 모성행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기술되어 있다.

두 시간 가량의 가정관찰을 통해 관찰자는 애착과 관련된 모자상호작용과 영아의 신호에 대해 어머니가 인지하는 경향과 반응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평가한다. 관찰결과에 기초하여 관찰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을 기술하는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어머니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9개의 수준에 따라 90장의 카드를 분류하게 된다. 즉 90장의 카드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에 놓으며, 각 점수마다 모두 10장의 카드가 놓이도록 한다. 따라서 모성행동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각 항목별로 1~9점의 범위에서 점수가 할당된다.

각 문항의 준거점수는 애착과 모성행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열명의 전문가들이 모성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각 문항에 할당된 점수들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Pederson 등(1990)이 산출한 이 도구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r(5)$.82였다. 모성 민감성 점수(Maternal sensitivity score)는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모성 민감성 준거점수와 관찰대상 어머니의 행동에 따라 분류된 점수간의 상관으로 계산된다.

3. 연구절차

1) 도구의 수정

우리나라 어머니의 모성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ederson 등(1990)이 개발한 90문항으로 구성된 모성행동 Q-set을 본 연구자가 번역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2개 국어에 능통한 전문가 두명에게 번역내용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다. 의뢰 후 몇 개의 어휘를 수정하고 아동발달 및 교육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다섯명과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다섯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우리나라 가정내 양육환경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최종 수정하였다.

2) 준거점수 개발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점수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영아의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내 유아교육과와 아동학과 교수, 그리고 소아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열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모성행동 Q-set의 90개 항목에 대해 12개월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고려하여 모성 행동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각 10장씩 카드를 분류하였다.

4. 자료처리

모성행동 Q-set의 모성 민감성 국내 준거점수는

전문가 열명이 12개월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염두에 두고 모성행동 Q-set의 각 문항에 대해 부과한 점수를 평균내어 산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국내 전문가들간의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모성 민감성 국내 준거점수와 Pederson 등(1990)이 산출한 모성 민감성 준거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평균 12개월된 영아와 그 어머니 30쌍을 대상으로 훈련받은 두 명의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 점수

열 명의 전문가들이 각 문항에 대해 부과한 점수를 평균내어 모성 행동 국내 준거점수를 산출하였다. 전문가들이 분류한 결과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72이상(.72~.86)의 상관을 보였으며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성 민감성 국내 준거점수에 대한 전문가들간의 상호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산출된 12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의 모성 민감성 준거점수와 Pederson 등(1990)이 제시한 모성 민감성 준거점수간의 문항간 평균점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88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성행동 Q-set의 각 문항에 대한 모성 민감성 국내 준거점수 및 Pederson 등(1990)이 제시한 준거점수는 <표 2>와 같다. 30명의 영아와 그 어머니쌍을 두 명의 관찰자가 두시간동안 관찰한 결과 관찰자간의 일치도는 .47~.93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 모성 민감성 준거점수에 의한 모성행동 특성

모성행동 Q-set은 어머니의 반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방식("아기를 먹일 때 아기의 움직임과 먹이는 일간의 균형을 맞춘다", "연령에 적절한 놀이감을 제공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아기에 대해 말할 때 설명이 일반적으로 긍정적

〈표 1〉 모성 민감성 점수에 대한 전문가들간의 상호 상관계수

(N=1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1.000									
2	.825*									
3	.822*	.870*								
4	.790*	.802*	.845*							
5	.765*	.723*	.735*	.800*						
6	.828*	.848*	.855*	.803*	.778*					
7	.808*	.772*	.818*	.765*	.780*	.817*				
8	.832*	.815*	.825*	.758*	.735*	.838*	.760*			
9	.763*	.813*	.773*	.800*	.805*	.770*	.807*	.752*		
10	.820*	.820*	.787*	.757*	.805*	.858*	.793*	.790*	.820*	1.000

*p < .01

〈표 2〉 모성행동 Q-set의 국내 민감성 준거점수 및 북미의 준거점수

항목번호	한국	북미	항목번호	한국	북미	항목번호	한국	북미
1	7.0	8.00	31	5.8	5.58	61	4.7	8.08
2	2.1	1.00	32	6.8	5.83	62	2.4	2.17
3	3.1	1.92	33	7.0	6.00	63	7.6	8.83
4	2.9	1.33	34	7.5	7.00	64	7.8	8.17
5	7.1	7.92	35	7.2	6.17	65	3.4	2.58
6	8.3	8.50	36	7.1	6.75	66	7.2	8.25
7	3.6	1.25	37	5.9	6.25	67	7.7	7.67
8	1.4	1.33	38	7.8	6.50	68	2.1	1.42
9	7.8	8.92	39	7.0	6.00	69	2.0	3.92
10	7.0	7.25	40	7.0	6.75	70	4.1	3.33
11	3.7	2.25	41	1.5	3.67	71	2.4	2.08
12	7.8	9.00	42	7.4	6.92	72	2.4	4.33
13	1.6	2.75	43	6.5	4.25	73	3.1	1.50
14	3.0	4.08	44	7.3	7.42	74	3.4	1.58
15	7.2	7.58	45	6.9	7.58	75	3.2	3.83
16	2.5	2.00	46	7.3	8.17	76	3.4	3.50
17	4.4	3.92	47	7.0	7.67	77	3.7	3.42
18	6.9	7.17	48	5.6	5.08	78	3.4	2.42
19	1.8	2.58	49	7.6	6.17	79	6.5	5.58
20	1.5	2.50	50	3.8	3.75	80	1.1	2.67
21	7.4	5.75	51	2.7	3.58	81	5.0	4.25
22	6.4	6.83	52	1.8	1.67	82	4.4	5.50
23	8.3	7.67	53	7.8	8.58	83	3.0	3.50
24	8.0	7.17	54	8.5	9.00	84	1.8	2.67
25	3.1	4.25	55	6.3	2.42	85	4.5	5.08
26	2.8	3.50	56	3.7	4.33	86	6.4	6.25
27	1.9	4.67	57	2.3	1.25	87	2.1	3.08
28	3.5	1.67	58	7.9	8.08	88	2.6	2.33
29	7.3	8.83	59	1.4	1.75	89	3.6	5.75
30	7.2	5.67	60	8.7	8.75	90	7.3	6.08

이다”. “아기가 보내는 괴로운 신호들이나 관심을 끌려는 행동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다”)과 영아에 대한 주의(“아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상호작용방식(“아기의 주변환경에 있는 재미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사물의 이름을

말해준다”. “아기가 적절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려 한다”)과 의사소통기술(“아기의 반응으로 미루어보아, 어머니는 아기의 신호들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어머니가 반응을 너무 늦게 해서 아기는 어머니의 반응을 자기가 처음에 했던 행동과 관련시키지 못한다”) 등을 기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민감한 모성행동 문항

문	항	준거점수
6.	아기의 반응으로 판단하건대, 어머니는 활발하고 흥미롭게 아기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한다	83
23.	아기를 한 개인으로서 존중한다. 비록 어머니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기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다.	83
24.	아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좋은 정보제공자이다.	80
54.	아기의 속도나 현재 상태에 맞춰 상호작용한다.	85
60.	아기가 괴로워할 때, 어머니는 그 원인을 빨리 정확하게 안다.	87

〈표 4〉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 문항

문	항	준거점수
8.	아기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일관성 없고 예측할 수 없다.	14
19.	아기의 부정적인 행동을 어머니에 대한 거부로 지각하고, 아기가 버릇없이 말안 듣는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18
20.	아기가 보내는 괴로운 신호들이나 관심을 끌려는 행동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다.	15
27.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19
41.	아기와 상호작용할 때 무표정하다.	15
52.	어머니는 아기가 위험할 것 같은 활동을 해도 그만두게 못한다.	18
59.	거칠거나 간섭적으로 아기와 상호작용한다.	14
69.	어머니는 상황에 벅차하며 우울해 보인다.	20
80.	어머니는 아기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11

〈표 3〉과 〈표 4〉는 이들 문항 중 본 연구결과 밝혀진 민감한 어머니의 특성과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제시된 준거점수에서, 민감한 모성행동은 각 문항별 준거점수 8.0이상인 문항이며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은 준거점수 2.0이하인 문항으로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모자 애착관계는 Bowlby(1969)가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 일컬었던 모자간의 상호작용적 구조를 지배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함축하고 있는 가정적 구인이라 할 수 있다. 모자 상호작용적 관계의 구조는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기 때문에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로부터 추론되어진다. 이러한 추론을 위해 Ainsworth 등(1978)은 낮선상황절차를 이용한 분류체계를 고안하였다. 낮선상황절차는 표준화된 절차로서 주요 애착유형에 따른 어머니와 영아의 행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잇점을 지니고 있지만 낮선상황이라는 실험실 상황에서 모자 상호작용 관계의 본질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고 실험자의 지시에 따른 어머니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생태학적 환경에서의 모성행동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Pederson & Moran, 1995).

따라서 모자 상호작용 관계의 역동을 반영하며 안정적인 모자 상호관계를 특징짓는 어머니와 영아의 특성으로서, 모성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안정성 및 안전기반행동을 평가하여 애착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가정관찰 기법이 요구된다. 가정관찰에 기초를 둔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안정성과 모성행동 평가에의 필요성은 국내 애착관련 연구들에서도 연구실

시상의 제한점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민감성간의 관련을 입증한 선행연구 결과(Belsky, 1984; Egland & Farber, 1984; Isabella & Belsky, 1991)와 달리, 어머니의 민감성에서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힌 박응임(1995)의 연구결과는 실험실 상황에서 모성 민감성을 측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모성 양육행동을 평가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여 모성 행동에 대한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에 힘들다는 연구결과(신숙재, 1997)도 반응척도 사용과 함께 행동관찰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도구가 미비한 현실에서, 한국 영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방법과 같이 질문지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가정관찰을 토대로 모성행동의 민감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Pederson 등(1990)에 의해 고안된 모성 행동 Q-set의 국내 준거점수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인 모성 행동 Q-set은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12개월된 영아에 대한 모성행동을 기술하는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성 행동 민감성 국내 준거점수는 예비조사를 통해 국내 가정환경에 맞도록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한 후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국내 전문가 열 명이 모성 행동의 민감성 정도에 따른 각 문항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개발되었다. 각 문항별 모성 행동 민감성 점수에 대한 전문가들간의 상관은 .72이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국내 준거점수와 Pederson 등(1990)이 산출한 준거점수간의 상관 역시 .88로 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12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 30쌍을 대상으로 두 명의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관찰자간 일치도는 .47~.93으로 유의하였다. 관찰자간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모성

행동 Q-set의 타당도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리적 구인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모성행동 Q-set이 모성행동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필요하다(나유미, 1996).

한편 모성 민감성 국내 준거점수와 Pederson 등(1990)이 제시한 준거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각 항목별로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몇 개의 항목(7, 27, 41, 43, 55, 61, 89번 문항)에서는 두 준거점수간에 2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일련의 개입을 반복하며, 종종 시행착오를 한다"는 문항은 국내 준거점수에서는 높은 점수(6.3)를 받았으나 Pederson 등(1990)의 준거점수에서는 낮게(2.42) 평가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방에 있지 않을 때 조차 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문항은 Pederson 등(1990)의 준거점수(8.08)보다 국내준거점수(4.7)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의도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며 민감성 수준에 있어 두 문화권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두 문화권의 준거점수에 의해 민감한 모성행동으로 공통적으로 분류된 문항들에는 아기가 괴로워할 때, 어머니가 그 원인을 빨리 정확하게 알고 아기의 속도나 현재 상태에 맞춰 활발하고 흥미롭게 상호작용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이들 문항중 국내 전문가들은 아기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어머니가 빨리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장 민감한 모성행동으로 분류하였으나 Pederson 등(1990)은 아기의 속도나 현재 상태에 맞춰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기를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며 어머니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아기의 행동을 수용하는 것과 어머니가 아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등은 Pederson 등(1990)은 민감한 모성행동에 분류하지 않았으나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류된 민감한 모성행동 특성들이었다. 반대로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민감한 모성행동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Pederson 등

(1990)이 민감한 모성행동으로 분류한 문항에는 아기의 신호에 일관적으로 반응하고 아기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아기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모성행동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전문가들이 아기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모성행동보다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고 적절히 상호작용하며 아기의 행동을 수용하는 모성행동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문화권의 준거점수에 의해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으로 공통적으로 분류된 문항들에는 의사소통시 어머니의 반응에 일관성이 없고 예측불가능한 것, 거칠거나 간섭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위험한 상황에서 아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행동등이 포함되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아기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가장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으로 분류한 반면, Pederson 등(1990)은 아기의 신호에 둔감한 모성행동을 가장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으로 분류된 문항에는 아기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것,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우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등의 어머니의 정서적인 표현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Pederson 등(1990)에 의해서만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으로 분류된 문항들에는 아기의 신호에 둔감하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행동과 어머니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자극행동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는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 또는 자극의 수준 등에 비해 영아 또는 어머니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갖는 것이 더 민감하지 못한 모성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이 모성행동의 민감성 수준에 따른 두 문화권간의 분류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문화권 특유의 가치관과 신념등이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따라서 모성행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성행동 Q-se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권에 맞게 개발된 국내 준거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모성행동 Q-set은 가정관찰에 기초

하므로 신뢰롭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성행동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토대로 한 관찰자간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을 물론이다. 또한 모성행동 Q-set을 사용한 추후 연구들을 통해 애착의 안정성과 모성행동 특성간의 관련성 및 모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간의 관련성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은아(1996). Q-set 애착평가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나유미(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박숙경(1995). 애착장애아의 어머니-아동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5)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7) 이영(1992). 인간발달생태학(Urie Bronfenbrenner 저). 서울: 교육과학사
- 8)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 131-148.
- 9) 최해훈(1997).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0)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11)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12) Blehar, M. C., Lieberman, A. F., & Ainsworth, M. D. S. (1977). Early face-to-face interaction and its relation to later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8*, 182-194.
- 13)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 14)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15)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 16) Bretherton(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759-775.
- 17) Cassidy, J. (1986).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2), 31-337.
- 18)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19) Dekovic, M., & Janssens, Jan M. A. M. (1992). Parents' child 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20) Eglu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21) Glo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ion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22) Hetherington, E. M., & Park, R. D. (1993). *Child psychology(4th ed.)*. NY: McGraw-Hill.
- 23) Hock, E., & Schirtzinger, M. B. (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 93-102.
- 24)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2), 373-384.
- 25) Izard, C. E., Haynes, O. M., & Baak, K. (1991). Emotional determinant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2*(5), 906-917.
- 26)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27) Luthar, S. S., Burack, J. A., Cicchetti, D., & Weisz, J. R. (1997).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8) Lutkenhaus, P., Grossmann, K. E., & Grossmann, K.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months and style of interaction with a stranger at the age of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56*(6), 1538-1542.
- 29) Main, M., & Weston, D.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ed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30)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31)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Serial No. 244), 111-132.
- 32) Schneider, E. L. (1991).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9, 251-266.
- 33)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34) Sroufe, L. A. (1984).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35)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36)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